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2021년 지식정보연구회 연구활동보고서

2021. 12.

서대문구의회
지식정보연구회

목 차

I. 연구회 소개 및 활동개요	1
1. 연구회 개요 및 연구계획	1
2. 2021년 연구활동개요	4
3. 연구활동비 지출현황	6
II. 연구활동별 결과보고	9
1. 연구용역 추진	9
2. 현장방문	15
3. 지식정보 전문가 특강	20
4. 기획회의	22
III. 활동후기	27
IV. 언론보도	43

I. 연구회 소개 및 활동개요	1
1. 연구회 개요 및 연구계획	1
2. 2021년 연구활동개요	4
3. 연구활동비 지출현황	6

I -1. 연구회 개요 및 연구계획

☐ 단 체 명 : 지식정보연구회

☐ 소속의원 : 양리리(대표), 최원석(간사), 김해숙, 김양희 의원

☐ 관련근거 :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

☐ 연구활동계획

단 체 명		지식정보연구회	
연구내용	주 제	지식정보격차 현황에 따른 정책대안 제안	
	목 적	지식정보격차 해소	
연구활동기간		2020년 3월 1일 ~ 2022년 6월 30일	
연구 활동비 책정액 (2021년)	총 액	금삼백일십만원(금3,100,000원)	
	산출내역	- 행사비(전문가 강연 및 간담회) : 800천원 - 정보격차해소 우수사례 견학비용 : 1,000천원 - 연구결과 자료집 제작비 : 300천원 - 회의개최 등에 따른 업무추진비 : 1,000천원	

☐ 설립목적

○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한 급속한 사회변화 속에서 지식정보의 습득과 활용은 생존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대두된 지 이미 오래이다. 그러나 지식정보화의 긍정적 효과와 기대에도 불구하고 추진과정에서 연령별, 계층별, 지역별 다양한 원인에 의해 지식정보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정보격차(Digital Divide)’는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일 순 없다. 본 연구회에서는 정보격차의 현상 중에서도 장애유형별·국

가별·연령별·지역별·계층별 정보격차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연구주제

장애유형별·연령별·지역별 지식정보격차와 관련한 각종 법, 제도, 정책, 현장 등의 진단을 통해 그 한계와 발전 방향을 모색

☐ 연구목적

- 장애유형별 지식정보격차 현황조사 및 대안마련
- 화교 및 다문화인들의 지식정보격차 현황조사 및 대안마련
- 어르신들의 지식정보격차 현황조사 및 대안마련
- 북한이탈주민의 지식정보격차 현황조사 및 대안마련

☐ 연구계획

- 정보격차의 주체, 정보의 형태, 정보의 내용, 정보격차의 범위 등으로 정보격차를 파악하고, 미진한 정보평등 실현 및 정보격차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 연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본 연구회에서는 다양한 문헌연구와 심층면접, 현지 조사 등을 병행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료 및 전문가들과의 워크숍을 거쳐 현실성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2021년 세부 활동계획

- 2020년 연구결과를 토대로 서대문구의 정보격차 현황을 파악하면서, 관련 조례를 통하여 행정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함.
- 2020년 코로나로 인하여 이행하지 못했던 사례관련 현장탐방 및 간담회를 소규모 혹은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
- 전문가 강연, 토론회,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정보격차해소에 대한 정책능력 배양

○ 월간 계획

1월	기획회의
2월	기획회의, 2020년 성과공유회
3월	기획회의, 현장방문
4월	기획회의, 현장방문
5월	기획회의, 전문가 강연, 간담회
6월	기획회의, 전문가 강연, 간담회
7월	기획회의, 토론회, 간담회
8월	기획회의, 전문가 강연, 간담회
9월	기획회의, 토론회, 간담회
10월	기획회의, 우수사례 견학, 간담회
11월	기획회의, 전문가 강연, 간담회
12월	기획회의, 2021년 연구결과보고회

I -2. 2021년 연구활동개요

월	활 동 내 역
2월	○ 2. 22.(월) 기획회의 ○ 2. 23.(화) 장애인권센터 관계자 간담회
3월	○ 3. 2.(화) 자원봉사센터 관계자 간담회 ○ 3.17.(수) 양천구 장애인권교육센터 방문 ○ 3.17.(수) 장애인권교육센터 방문관련 간담회 ○ 3.17.(수) 기획회의 ○ 3.24.(수) 지역언론 관계자 간담회
4월	○ 4.15.(목) 기획회의 ○ 4.15.(목) 지식정보 전문가와의 간담회 ○ 4.19.(월) 지식정보 전문가 1차 특강(피플스그룹 IT이사) ○ 4.27.(화) 연구용역 추진 관련 관계자 간담회
5월	○ 5.3.(월) 기획회의 ○ 5.3.(월) 전문가특강 관계자 간담회 ○ 5.4.(화) 지역언론 관계자 간담회 ○ 5.25.(화) 지식정보 전문가 2차 특강(피플스그룹 IT이사)
6월	○ 6.4.(금) 연구회 활동관련 관계자 간담회 ○ 6. 21.(월) 기획회의 ○ 6.29.(화) 문해교육협회 관계자 간담회

월	활 동 내 역
7월	○ 7. 6.(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 7. 21.(수) 기획회의 ○ 7.21.(수) 연구회활동관련 관계자 간담회
10월	○ 10.15.(금) 정보소외청소년 정보화교육관련 관계자 간담회 ○ 10.18.(월) 연구용역 중간보고 관련 용역수행자 간담회 ○ 10.18.(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 10.18.(월) 기획회의 ○ 10.27.(수) 연구용역 추진관련 간담회
11월	○ 11.11.(목)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 11.16.(화) 기획회의
12월	○ 12. 1.(수) 소전서립(도서관) 방문 ○ 12. 3.(금) 연구활동보고서 제출

I-3. 연구활동비 지출현황

- ☐ 연구활동비 책정금액 : 금3,100,000원
- ☐ 지출금액 : 금2,666,900원(집행률 86%)
- ☐ 지출내역

연번	사용일	적요	사용처	지출금액	지출구분
1	2/23	장애인권센터 관계자 간담회비	노아스연희헤리타지	26,100	업무추진비
2	3/2	자원봉사센터 관계자 간담회비	노아스연희헤리타지	37,300	업무추진비
3	3/17	장애인권교육센터 방문관련 간담회비	파리바게트	62,800	견학비
4	3/17	장애인권교육센터 체험교육비	장애인권교육센터	300,000	견학비
5	3/24	지역언론 관계자 간담회비	녹원	118,000	업무추진비
6	4/15	전문가특강관련 간담회비	라운	112,000	업무추진비
7	4/19	지식정보 전문가특강 강사료	신수식	360,000	행사비
8	4/19	지식정보 전문가특강 간담회비	노아스연희헤리타지	60,000	업무추진비
9	4/27	연구용역 추진관련 관계자 간담회비	노아스연희헤리타지	21,300	업무추진비
10	5/3	전문가특강 관계자 간담회비	노아스연희헤리타지	21,300	업무추진비
11	5/4	지역언론 관계자 간담회비	노아스연희헤리타지	16,600	업무추진비
12	5/26	지식정보 전문가특강 강사료	신수식강사	480,000	행사비
13	6/4	연구회활동관련 관계자 간담회비	라자트	116,000	업무추진비
14	6/29	문해교육협회 관계자 간담회비	알레스구떼	33,200	업무추진비
15	7/21	연구회활동관련 관계자 간담회비	연경연희점	70,000	업무추진비
16	10/15	정보소외청소년 정보화교육관련 관계자 간담회비	맥널티커피팩토리	52,000	업무추진비
17	10/18	연구용역 중간보고 관계자 간담회비	쉐프수	160,000	업무추진비
18	10/27	연구회 연구용역 추진관련 간담회비	신화장	95,300	업무추진비
19	12/1	소전서립도서관 방문입장료	소전서립	225,000	견학비
20	12/17	활동결과보고서 제작비	북청사	300,000	자료집제작
합계				2,666,900	

II. 연구활동별 결과보고	9
1. 연구용역 추진	9
2. 현장방문	15
3. 지식정보 전문가 특강	20
4. 기획회의 등	22

Ⅱ-1. 연구용역 추진

□ 의원정책개발비 예산편성 개요

- 2019. 7.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항목 신설
- 편성목적 : 자치단체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의원정책개발비 신설
- 지원대상 :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지방 의회에 등록된 의원 연구단체
-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하되, 공청회나 세미나, 간담회 등은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편성
 - ※ 해당 지방의회에 등록된 지방의원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경우 지원(의원 개인에게 지원 불가)

□ 연구용역 개요

- 용역명 : 서대문구 주민과 의회의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공공정보 소통 실태조사 연구용역
- 계약업체 : (주)채인지(대표: 양한순)
- 계약금액 : 금19,440천원
- 계약기간 : 2021. 6. 16.(수) ~ 11. 10.(수)

□ 과업목적

- 정보 취약계층이 많은 서대문구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정보취약계층의 생활 실태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서대문구만의 차별화된 정보격차 해소 정책 수립
- 각종 행정기관 및 편의시설의 이용을 둘러싼 문제점을 파악하여 실질적 정보격차 해소 방안 마련
- 현황 조사 및 관련 선행연구자료 등을 반영하여 서대문구 정보취약계층 정책방향 등 중장기 세부사업 제안

□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서대문구 전역
- 내용적 범위
 - 서대문구 지역주민 정보격차 기초현황 조사
 - 서대문구 주민의 계층적, 지역적 특성 및 정보 정책 수요 분석

- 정보취약계층의 지역사회 내 참여와 적극적 역할 부여를 위한 방안 제안
- 서대문구 주민 정보격차 해소 및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향상을 위한 정책의 목표 설정 및 핵심과제 제안

□ 과업의 대상

- 관내 정보취약계층
 - 1) 장애인
 - 2) 노년층
 - 3) 저소득층
 - 4) 다문화
- 관내 행정기관 및 편의시설 : 서대문구청, 도서관 등
- 관내 사업체 및 학교, 단체 등

□ 과업의 내용

- 서대문구 지역주민 정보격차 기초현황 조사
 - 지역주민 정보격차에 대한 선행 연구조사, 문헌조사, 통계분석, 설문조사 및 대면 심층 인터뷰, 집단 심층면접(FGI)을 통한 지역주민 정보격차 현황 파악 및 지원 정책 제안
 - 대표적 정보취약계층인 다문화, 장애인, 노년층, 저소득층의 정보이용실태 파악 및 해결방안 제시
 -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 지원정책 제안
 - 관내 정보취약계층 주민의 경제상태, 가족관계, 생활양식, 서비스 수요 등에 관한 조사
- 서대문구 주민의 계층적, 지역적 특성 및 정보 정책 수요 분석
 - 사회·경제적 여건 등 정보취약계층 관련 서대문구 지역적 특성 파악
 - 정보취약계층의 유형별 특성 분석 및 지원 정책 수요 파악
 -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커뮤니티화를 위한 유도 정책 제시
 - 정보활용 가능한 관내 도서관, 구청 등 현황파악 및 관내 지역의 디지털정보 리터러시를 위한 이동정보센터 등 활용방안 제시

- 정보취약계층의 지역사회 내 참여와 적극적 역할 부여를 위한 방안 제언
 - 관내 정보취약계층 주민의 네트워크, 사회참여 현황, 특징 및 문제점 파악
 - 지역사회 내 참여도 향상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 서대문구 주민 정보격차 해소 및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향상을 위한 정책의 목표 설정 및 핵심과제 제언
 - 기존 서대문구 정보격차 해소 정책 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제언
 - 서대문구 정보취약계층 실태 분석을 반영한 서대문구 지원 정책의 근본적 목표, 전략 설정 및 핵심 과제 개발
 - 지역사회 내 정보취약계층의 참여 활성화 및 지원 정책 개선을 위한 서대문구 및 기타 유관기관의 역할 제시
 - 서대문구 특성을 반영한 정보격차 해소 및 디지털 리터러시 정책의 중장기계획 수립을 통한 지역사회 내 소통 활성화 및 사회 통합에 기여

☐ 과업수행과정 : 착수보고회

- 일 시 : 2021. 7. 6.(화) 15:00~16:00
- 장 소 : 서대문구의회 의정연구실(2층)
- 주요내용
 - 연구용역의 목적 및 연구방법, 연구일정 공유 및 심도있는 연구를 위한 의견과 방향성 제시
 -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과 인터뷰를 실시하여 양적조사 시행
- 용역관련 의원제언
 - 김양희의원 : 서울은 인구 대비 의원수가 많지 않다. 지방에 비해 구민과의 소통에 힘든 점이 있다. 훨씬 더 편리한 소통방법이 필요하다. 구의원들이 하는 일에 비해 인지도도 낮고 인정도 제대로 못받고 있는 실정이다.
 - 양리리의원 : 연구지표를 통해 의원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부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연구계획에 부합하는 것 같다. 구민입장에서는 의원이나 의회가 있으나마나 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전문가 특강을 했던 신수식강사님도 이 자리에 모셨는데, 명함에 QR코드를 넣는 등 의원의 업무나 접근성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 시대가 변하는 만큼 정보습득 방법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스마

트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 조언을 해줄 전문가가 필요하다. 정보활용과 강화를 활성화하고 페이퍼 연구가 아닌 실질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도출되면 좋겠다.

- 연구원 : 구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소통하고 해결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

○ 개최사진



□ 과업수행과정 : 중간보고회

○ 일 시 : 2021. 10. 18.(월) 10:30~11:30

○ 장 소 : 서대문구의회 의정연구실(2층)

○ 주요내용

- 부제 : 서대문구 정보공동체 활성화와 의회의 역할
- 정보취약계층(장애인, 노인, 다문화 등)을 대상으로 한 양적데이터(총98명 설문조사), 질적데이터(50명 인터뷰) 수집결과 보고
- 통합분석 결과보고 및 정책방향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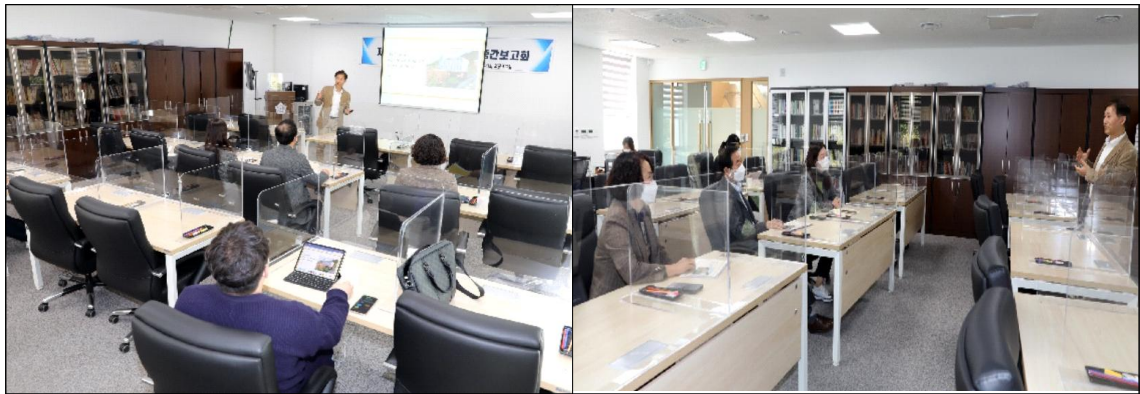
○ 용역관련 의원제언

- 김양희의원 : 원활한 의정홍보와 구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는 의원 서로간의 소통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홍보수단 활용에 대한 서로의 의견 교환으로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김해숙의원 : 설문지문항이 체계적이어서 결과물이 더 잘 나올 것 같다. 이를 바탕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 양리리의원 : 의원, 직원들 모두 홍보하고 싶은 게 많지만, 법적으로 제약이 많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뿐 아니라 새로운 채널이 계속 생기는 만큼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 의원들은 주민에게 가까이 가고자 하나,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 근거자료를 충실히 첨부하여 법적 한계까지 검토하여 결과를 도출하면 더 좋을 것 같다.

- 연구원 : 채널보다 콘텐츠가 중요하고 여러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서대문만의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홍보인력도 더 있어야 한다.

○ 개최사진



□ 과업수행과정 : 최종보고회

○ 일 시 : 2021. 11. 11.(목) 14:00~15:00

○ 장 소 : 서대문구의회 의정연구실(2층)

○ 주요내용 : 연구용역 최종보고, 향후 활용방안 논의

- 주민이 의회와 협력하고, 지방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초의회와 주민들 상호 간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결과, 소통의 주체가 되는 주민과 의원 모두 상호 간의 의사소통 정도가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또한 대다수의 구민이 구의회에서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소통수단을 이용하지 않은 사실을 통해 구의회에서 생산한 정보가 주민들에게 퍼지고 있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음.
- 서대문구 구민 및 의회의원과 사무국을 바탕으로 기초의회와 구민 간 의사소통현황을 점검하고, 의사소통 활성화 및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소통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지방자치의 주체이자 객체가 되는 구민의 경우, 지역사회에 관심을 기

울이고 있는 주민과 그렇지 않은 주민을 구분하기 위해 일반주민, 활동가, 단체회원, 당원으로 분류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고, 서대문구의 구민들에게 특화된 정책방향을 제안함.

○ 개최사진



Ⅱ-2. 현장방문

양천구장애인권교육센터 현장방문

☐ 일 시 : 2021. 3. 17.(수) 12:00~16:00

☐ 장 소 : 양천구장애인권교육센터(양천구 목동동로 81 해누리타운 4층)

☐ 방문목적

- 장애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해 자치구 최초로 설립된 장애인권교육센터를 방문하여 체험실을 견학하며 기관운영현황을 설명듣고, 실제 장애인 체험을 함으로써 장애인식 개선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 방문의원 : 지식정보연구회원(양리리, 최원석, 김해숙, 김양희 의원)

☐ 방문일정

시간	일정	비고
12:30~13:30	센터 현황 및 목적 소개	센터장
13:30~15:10	지체장애인 이동권 체험	외부체험활동
15:10~16:10	유니버설디자인 체험실 견학	체험실 별 담당
16:10~16:30	체험소감 및 질의응답	센터장 및 운영담당

☐ 센터 일반현황

- 개 관 일 : 2011. 4. 1.(지자체 최초 개관)
- 시설현황 : 교육실, 상담실, 시각장애체험실, 자립생활체험실, 이동체험실 등

☐ 주요내용

- 지체장애인 이동권 체험
 - 지체장애인(휠체어사용자)의 이동권 의미와 조작법

- 외부체험활동 : 2인 1조로 짝을 이루어 실제 장애인처럼 휠체어를 타고 밖으로 나가 거리, 공원, 관공서, 상점 등을 다니며 불편사항을 체험해 봄.

○ 유니버설디자인 체험실 견학

- 장애인당사자가 진행하는 ‘열려라 UD체험실’ 견학
- 침실, 주방, 욕실, 유니버설디자인 제품을 체험하며 장애인들이 생활속에서 어떤식으로 자립하여 살아가는지를 장애인 강사들의 설명을 들으며 견학함

□ 방문소감

- 교육을 장애인이 직접 설명해주어서 이해(전달)가 빠른 것 같다. 당사자가 입장을 조금이나마 체험하면서 느낄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었다. 평소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장애인권을 위한 도구, 물건들의 다양함에 놀랐다. 그러나 실제 체험을 하니 앞으로도 더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 다양한 체험과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
- 1시간 동안 목발하며 걸어가기, 휠체어타고 50m 다녀보기 등 학교 체험학습 교육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 일상에서 편하게 생활하는 부분이 막상 장애인으로 휠체어를 타고 보니 작은 굴곡과 약간의 경사에도 힘이 많이 들어갔다. 작은 굴곡이라도 평평하게 하는 것을 고민해 봐야겠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시각장애인 실습도 해보고 싶다. 체험교육이 비장애인들로 하여금 큰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 모두를 위한 디자인인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서대문구에도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발의하여 제정하도록 하겠다.

□ 견학사진



소전서림(도서관) 현장방문

☐ 일 시 : 2021. 12. 1.(수) 10:00~15:00

☐ 장 소 : 소전서림(도서관)

(강남구 영동대로138길 23)

☐ 방 문 자 : 지식정보연구회원, 민관협치과장, 도서관정책팀장, 협치지원팀장

☐ 방문목적 : 연구회 연구활동의 일환으로 최근 개관한 문학 및 예술전용 도서관을 방문하여 도서관 공간, 예술살롱 콘텐츠 운영공간 등 기관현황 견학

☐ 세부일정

시간	일정	비고
10:00~12:30	기관방문 전 사전간담회	
12:30~13:00	도서관 투어, 운영현황 기관설명	도서관 운영담당
13:00~14:30	도서관 프로그램 체험	도서관 운영담당

☐ 기관개요

○시 설 명 : 소전서림

○개 관 일 : 2020.2.22. 개관

○운영현황

- 멤버십형(유료) 문학 도서관으로 방문자가 책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고 사색하는 공간으로 운영
- 북 도슨트가 상주하여 맞춤형 도서 추천 서비스를 제공
-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 전시 및 독자를 위한 강연, 공연 이벤트 상시 운영
- 도서관의 일반적 기능 이외에 휴식과 커뮤니티 공간으로써의 역할도 겸비

○소장자료 현황 : 문학, 인문, 철학, 예술도서 약 4만여 권

방문사진



Ⅱ-3. 지식정보 전문가 특강

지역사회와 스마트워크 I

- ☐ 일 시 : 2021. 4. 19.(월) 10:00~12:00
- ☐ 장 소 : 서대문구의회 의정연구실(2층)
- ☐ 강의주제 : 스마트폰을 활용한 구민과의 소통방법
- ☐ 강 사 : 신수식 피플스그룹 IT담당이사

경력 사항	- 한흥증권(우리증권) 개발자 - 동인하이테크 개발팀장 - 주식회사 렉스켄 기술지원팀장 - 신무림제지 전산책임자 - 스타칩 빌링시스템 개발 및 운영 - (주)인포텍닷컴 영업 및 기술지원 - 국어생활연구원 "스마트폰과 국어생활" 월1회 정기강의 진행
저서	- 핸드폰 하나로 스마트워크 도전(2019)

☐ 강의내용

- 스마트폰 기본활용법 - 주소록을 기반으로 한 구민 소통방법
- 스마트폰 환경 정비 - 사진과 메모를 효과적으로 업무에 연동하는 방법

☐ 강의사진



지역사회와 스마트워크 II

□ 일 시 : 2021. 5. 25.(화) 14:00~18:00

□ 장 소 : 서대문구의회 의정연구실(2층)

□ 강의주제 : 지역사회와 스마트워크 심화과정
(스마트폰을 활용한 구민과의 소통방법)

□ 강 사 : 신수식 피플스그룹 IT담당이사

□ 강의내용

-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이용한 실습
 - QR코드와 전자명함을 이용한 홍보방법
 - 클라우드 활용 기초
 - 구글을 활용한 공동작업
- 스마트폰 환경정비
 - 클라우드 활용하기
 - 말로 글쓰기

□ 강의사진



Ⅱ-4. 기획회의

☐ 기획회의 개최실적 : 총 8 회

☐ 주요 논의내용

일시	논의내용
2.22.(월)	- 연구활동비 변경 ·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반영(행사비 100만원->80만원) - 연구회 연간활동계획 공유 ·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취득을 위한 현장방문(복지관) 및 기록원 등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견학추진 · 전문가 초청특강을 통한 심도있는 연구진행 · 2021년도 연구용역을 위한 주제를 미리 생각해보기
3.17(수)	- 현장방문 결과공유 · 장애인권교육센터 방문 및 체험 소감 · 교육센터를 활용한 교육활성화 방안
4.15.(목)	- 의원정책개발비 연구용역 발주 논의(주제, 과업내용 등) · 전년도 연구용역 성과를 바탕으로 주제를 더욱 확대하여 지역사회의 정보격차연구를 지속 · 5월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개최 이후, 용역계약 체결 및 연구용역 진행 - 전문가특강 사전준비 · 일시: 2021.4.19.(월) 10:00 · 강사: 신수식 피플스그룹 IT담당이사 · 주제: 지역사회와 스마트워크
5.3.(월)	- 지식정보 전문가 특강 세부계획 논의 · 특강 세부내용 및 특강참가 대상 · 사전 준비사항 · 이론과 실습을 동시에 진행하여 참가자의 이해도 향상

일시	논의내용
6.21(월)	-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일정 논의 · 용역기간: 2021.6.16.~11.10(착수일로부터 5개월) · 착수보고회: 2021.7.6.(화) 15:00 예정 - 현장탐방 일정 논의 · 일시: 2021.8.24.(화) 예정 · 장소: 서울기록원(은평구 소재) · 목적: 기록원 기록관리 체계 및 전시 프로그램 견학
7.21.(수)	- 연구용역 추진상황 논의 · 연구용역 관련 주민 설문조사 홍보을 위한 방법-홈페이지, SNS 등 - 하반기 연구활동 일정 논의 · 현장탐방, 세미나 등 연구주제와 관련된 활동방안
10.18.(월)	- 연구용역 중간보고 결과 공유 · 주민과 의원간 의사소통을 위한 소통창구 모색 · 용역 수행중의 개선사항 논의
11.16.(화)	- 현장방문 활동 논의 · 일시: 12.1(수) · 장소: 소전서림(강남구) · 현황: 문화예술 분야 전문도서관 운영 현황 청취 및 프로그램 체험 - 2021년 연구용역 활용방안 공유

□ 사진



Ⅲ. 활동후기	27
---------------	----

서대문구 주민과 구의회의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지식정보연구회

양리리 의원

남루한 행색의 중년남성이 서대문보건소 앞 버스정류장에서 표지판을 보며 서대문역 가는 버스를 찾고 있다. 사람들에게 직접 묻지도 못한다. 사람들도 무관심하게 지켜보고만 있다. 스마트폰 길찾기앱을 이용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을 한참 동안 표지판만 들여다 보고 있다. 나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으니 괜한 오지랖 부리지 말자 생각했다. 가만히 핸드폰만 들여다 보다가 결국 내가 먼저 말을 걸었다. 7713이나 7738 타고 홍제역에 내려 중앙차선에서 버스를 타면 서대문역으로 갈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공교롭게 같이 7738을 타고 홍제역을 내리니 또 중앙버스정류장을 찾기 위해 두리번거린다. 결국 중앙차선까지 그 분을 모셔다 드렸다.

지식정보연구회는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지식정보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위해 만들어진 연구회다. 그 분은 스마트폰을 갖고 있었지만 사용법을 잘 모르는 것처럼 보였다. 대부분 사람들에게 익숙하고 편리한 것이지만 아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정보소외계층이라 한다. 정보화사회에서 정보를 제대로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느끼는 소외 현상을 정보 소외라 한다.

구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구청에서 주민대상으로 제공하는 많은 서비스 정보를 알게 되었다. 주민들에게 지방세나 자동차세 등 세금과 관련된 업무나 가족관계부나 등본 같은 민원 등 고전적인 업무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지만, 각종 행사에 대한 일상 정보도 필요하다.

각 부서마다 주민대상 무료 교육이나 이벤트가 참 많다. 부지런히 구청 홈페이지를 보거나 지역 활동을 열심히 하는 주민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정보를 알지 못한다. 각 부서는 나름 열심히 홍보에 열을 올리지만 주민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로 공적도움에 대한 수요가 이전에 비해 더 많아졌다. 이런 공적도움에 대한 정보는 정보소외계층에게 더 절실하다. 정보소외계층은 모바일이나 온라인 접근성도 낮고, 주변 인적네트워크도 빈약하다. 따라서 가장 직접적으로 절실히 공적도움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정보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행사와 유관단체회의, 민원처리를 위해 주민 만날 기회가 많은 구의원은 업무 특성상 현장을 직접 알 수 있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도 쉽다. 어떤 정보를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어떻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지식정보연구회는 올해 ‘서대문구 주민과 의회의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공공정보 소통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연구결과를 축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많은 주민들은 구의원이 누구지도 잘 모르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민원, 간담회, 토론회 등 여러 경로로 구의원을 직접 만나 본 지역주민들은 구의원의 역할과 필요성에 공감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그들을 통해 구청정보를 전달받고 의사가 반영되는 것에 만족감이 높았다.

지역주민에게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다가가기 위해 ‘지역사회와 스마트워크’란 주제로 전문가 특강을 2회에 걸쳐 수강했다.

대표적 정보소외계층인 장애인 이해를 위해 양천구 장애인인권교육센터를 방문하여 지체 장애인 이동권체험을 했다. 2인 1조로 휠체어를 타고 건물 밖을 나가 관공서와 공원, 식당에 가보는 것이다. 지체장애인 이동권체험을 통해 2021년 ‘서대문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와 ‘서대문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발의했다.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마련을 통해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조례이다. 장애인이 편한 보행환경은 비장애인에게는 더 편하다.

성별·연령·장애유무 등에 관계없이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설계인 유니버설 디자인의 보급과 활용을 통하여 주민들이 보편적인 환경 속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서대문구를 조성하는 조례이다. 우리 모두를 위한 조례이다.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과 간담회를 통해 장애유형별 특성과 필요정보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근육경직이 많은 장애인은 운동이 꼭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운동 할 장소도 여건도 아니다. 신체적 여건에 따라 운동처방사의 지도에 따른 운동을 위해 이를 예산에 반영하였다.



짧은 1년이었지만 동료의원들과 최선을 다해 서대문구 지식정보환경을 개선하고자 연구도 하고 현장도 살펴, 이를 예산, 조례, 감사, 정책 등에 반영하였다. 구의원으로 할 수 있는 지행합일을 이루고자 하였다. 앞으로 구의원 임기와 함께 지식정보연구회의 활동 기간도 6개월 정도 남았다. 비록 더 짧은 기간이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활동하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고, 소리 내지만 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활동하는 지식정보연구회다.

구민과 의회의 의사소통 활성화 방안

최원석 의원

전 세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 된 이때, 구의회와 주민 간 소통의 활성화는 이러한 사회적 위기를 극복할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어려움이 점점 커져가는 이 시기에 지방의회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새로운 ‘자치분권2.0’ 시대를 맞이하여 서대문구의 기초의회와 주민 간 의사소통 활성화 및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프로젝트로 저는 지식정보 연구회 참여하여 추진하였다.

금번 제가 참여한 연구회는 의회가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 역사회의 공공정보 및 의사소통의 실태를 파악 및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적절한 정책을 제안하고 좀 더 가까이 있는 서대문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현재 구의회와 주민들 간의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러므로 의회와 주민들 간의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채널이 활성화된다면 의회가 지역현안과 민생, 민원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갖게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가능해지고 지역 공동체의 집단지성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1991년 부활한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지난 30년간 한국의 참여 민주주의와 지역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의 권한이 강화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공포로 “자치분권2.0”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을 통해 기초의회의 책임 및 권한과 주민참여 제도가 더욱 강화 되었으나, 현재 기초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그것은 금번 연구회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소통의 주체가 되는 주민과 의원 모두 상호간의 의사소통 정도가 낮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의사소통 활성화 및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소통 개선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자치의 주체이자 객체가 되는 구민의 경우, 지역사회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주민과 그렇지 않은 주민을 구분하기 위해 일반 구민·활동가·단체회원·당원으로 분류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고, 서대문구의 구민들에게 특화된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추진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여러 가지의 조사를 토대로 의회가 소통에 대한 몇 가지 개선점과 제안을 검토하여 서대문구에 사정에 맞는 소통방법으로 실현 가능한 개선점을 적용하고자 한다.

① 소통을 위해 열린 의회

구민과 구의회의 의사소통을 활발하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구의회의 열린 태도이다.

참여가 많아질수록 구의회로 구민의 의사가 모이고 의회의 정보가 구민에게 확산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② 구의회만의 역할 정립

어떤 민원 사항이 생겨도 그 문제를 갖고 구청으로 찾아가야 할이지 구의회로 찾아가야 할지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홍보와 소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구청과 구분되는 어떤 공공정보를 바탕으로 구민들과 소통할 지 아직 모호한 상태이다. 따라서 구의회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이를 주민들이 분명히 인식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③ 마을버스 모니터를 활용한 홍보

구의회의 역할을 구민들의 인식에 각인시키기 위해, 서대문구의 마을버스 내 모니터를 활용해 구의회의 역할을 홍보 하도록 한다. 구의회에서 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의정활동이 구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콘텐츠를 만들어 홍보한다. 지하철역을 이용하기 위해 마을버스를 필수로 이용해야 하는 행정동이 많은 서대문구의 특성상 기대효과가 더욱 높을 것이라 생각된다.

④ 유튜브의 활용

현재 이미 서대문구의회에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지만 유튜브 채널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고 중요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⑤ 알림서비스 및 의회 소식지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구의회소식 알림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의정소식 문자알림 서비스의 경우, 보다 쉽고 간단하게 의정소식을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의정소식 메일링 알람서비스의 경우에도 서대문구의회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구의회 측에서는 구민들의 요구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구민들에게는 구의회와 보다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⑥ 발언기회 부여

의회에서 구민방청자에게 되도록 많은 발언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례회에서 일반 질문 후, 의회 휴식시간 동안에 방청자가 질문과 의견을 발언할 기회를 설정하고 이에 대하여 의장 혹은 담당의원이 답변한다. 방청자와 질의응답은 의사록에는 기록하지 않지만 의회의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오프라인 방청뿐만 아니라 ZOOM과 같은 앱을 활용하여 온라인 방청과 발언기회 부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기회는 주민과 의원이 직접의회 회의장에서 대화를 함으로써 ‘열린 의회’를 실현하는 기회가 된다. 단지 이런 열린 의회의장을 특정집단이 독점하지 않도록 모든 주민에게 폭넓게 홍보를 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⑦ 오프라인의 커뮤니티 공간(‘서대문공간’)과 찾아 가는 의회 (‘버스킹의회’)

기초의회의 가장 큰 장점은 지리적으로 구민들과 가깝다는 점이며 오프라인 만남이 쉽다는 점이다.

이런 장점을 이용하여 의원이 주체가 되어 찾아가는 의회, 소위 ‘버스킹의회’를 수시로 연다. 이런 교류의 장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서 구체적인 정책화로 연결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민들이 의회에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기회가 된다. 이처럼 지역사회와 밀착할 수 있다는 구의회의 장점을 살린 오프라인 활동을 주 무대로 삼되, 물리적인 거리 및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버스킹의회에 참여할 수 없는 구민들을 위해, 유튜브 스트리밍 송출 혹은 ZOOM과 같은 화상회의 플랫폼을 이용한 협치회의 역시 운영할 필요가 있다.

⑧ 주민정책 서포터와 모니터링

주민을 정책 서포터로 활용하여 의회의 정책을 개발한다. 추진방법은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의회에서 핵심 정책을 입안한 후 공모 또는 의원 추천으로 서포터를 모집하고, 핵심 정책에 대하여 의원과 주민 간에 논의를 통하여 완성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의회가 주체가 되어 정책제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정책을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완성하는 것이다.

위의 내용에서 나타난 소통 개선방안 및 제언을 활용하여 서대문의회와 구민들의 소통 방법을 연구하여 좀 더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소통에 필요한 방법을 연구하고 우선 활용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지원하고 구민들과 소통에 필요한 방안을 계속 개발하도록 연구를 지원하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좀 더 적극적인 노력으로 주민들과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초심가지고 더 주민과 소통하며 활동하기

김해숙 의원

지난해에 이어 지식정보연구회 활동 2년차이다. 어설퍼던 지난해보다 더 꼼꼼히 연구회에 더 애정을 쏟아보려 했는데, 벌써 연말이다.

한해동안 기획회의도 여러 차례하고, 2월에는 2020년에 연구했던 “서대문구 주민 정보격차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질적조사”의 성과공유회를 가지며, 구민들의 연령별, 계층별 정보격차 현황을 알아보는 연구용역의 성과를 공유하였고, 3월에는 양천구에 있는 장애인인권교육센터 현장방문도 하였다. ‘양천구장애인인권교육센터’는 장애인인권교육과 장애체험활동은 물론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양천구장애인인권교육센터’를 방문해 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 격차를 줄이는 체험도 하였다.

이어 4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 피플스그룹 IT이사를 초빙하여 스마트워킹을 위해 핸드폰을 활용하여 내 정보를 조직적으로 유용하게 관리하는 전문가특강도 들었다.

그리고 7월 우리 지식정보연구회가 올해 가장 의미있게 활동한 것으로 꼽을 수 있는 연구용역을 발주하였다.



지난해에 발주하였던 “서대문구 주민 정보격차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질적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연령별, 계층별 정보격차 현황을 알아보는 연구용역을 시행한 바 있는데, 올해는 그 연구대상의 범위를 좁혀 “서대문구의회와 주민의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공공정보 소통 실태조사”를 주제로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보다 깊이 있게 주민들과의 소통을 점검해 본 것이다.

정식 연구제목은 ‘기초의회와 주민 간 의사소통 활성화 및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서대문구 공공정보 소통 실태조사’.

연구용역은 질적조사 전문업체인 (주)채인지에서 7월부터 11월까지 연구수행을 하였다.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거치니 벌써 연말인 것이다. 연구는 일반 주민들과 구의원들 그리고 구의회 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조사들로 진행되었다. 많은 주민들이 구의회에 기대하는 역할이 주민을 대표하는 역할로 인식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청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과 구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역할이 비슷하게 나왔다. 역시 구의원은 주민을 대표하여 의정활동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큰 것이었다.

아직 구의회와 주민들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주민들의 정치인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 있고, 열심히 활동하는 것에 비해 평가가 작은 부분은 아쉽지만, 그래도 구의원들이 주민 편에서 민원을 원활하게 해결하거나, 구청과 주민이 대화할 수 있도록 중재하였을 때 또 주민을 위한 예산 배정과 조례 발의 등이 참 보람을 느낀다.

무엇보다도 주민들과 구의회가 서로 협력하고 지방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의회와 주민들 상호 간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더 의사소통이 활발해지고, 또 주민참여 확대를 모색해 볼 수 있을까?

이에 주민들이 관심사인 민원들에도 더 관심을 갖고,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소통하는 열린 구의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식정보연구회를 통해 가진 이번 ‘기초의회와 주민 간 의사소통 활성화 및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서대문구 공공정보 소통 실태조사’의 연구가 진심으로 주민 편에 서서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잘살도록 하는데 역할을 하고 싶어 출사표를 던졌던 나의 초심을 되돌아 볼 수 있었다. 최선을 다해, 지역을 위해, 일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가 소통하며, 열심히 활동 할 것을 다짐해 본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꾸며..

김양희 의원

양천구 장애인권교육센터 방문을 시작으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까지 우리 지식정보연구회를 이끌어오신 양리리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현장방문과 전문가 강연, 간담회 및 토론회, 그리고 우수사례 견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식정보연구회의 한해를 마무리 할 수 있었음에 연구회 회원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저는 강연, 간담회, 토론 등 모든 활동을 통해 그 당시의 그 시간들마다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장체험은 오랜 시간이 지나기까지 더욱 기억에 남아 많은 생각과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고 봅니다.

양천구 장애인권교육센터에서의 체험은 한 번의 방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체험을 통해 일상에 활용 및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단순히 휠체어를 타고 밀어보는 경험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장애 당사자가 되어봄으로써 뒤에서 밀어주는 협조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을 얼마나 편하고 불편하게 하고 있는지를 체험할 수 있었기에 더욱더 상대방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기회였습니다.

건강한 눈을 가진 사람도 아무 장애물이 없는 평평한 길도 눈을 감고 10여 미터만 가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장애인은 누구나 될 수 있다고 하셨던 고 김대중대통령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우리 지식연구회 활동이 탁상이론에 그치지 말고 현장과 현실에 많은 것들을 우리의
가슴으로 느꼈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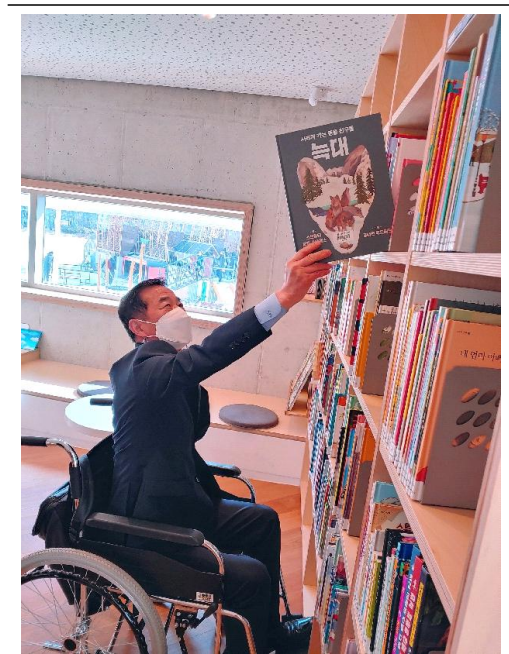
아무쪼록 지식정보연구회 전 회원이 하나가 되는, 언제나 함께하는 연구회 활동이 계속
유지되기를 소망해봅니다.

지식정보 연구회 회원여러분 함께 한 시간들이
행복했습니다.

한해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함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IV. 언론보도	43
-----------------------	-----------

□ 주요 보도내용

서대문사람들

2021.5.20.(목)

지식정보연구회, 양천구 장애인권교육센터 현장방문

‘다름’을 이해해야 격차 해소도 앞당길 수 있어



△지식정보연구회 양리리 대표의원과 김해숙, 최원석, 김양희 의원이 양천구 장애인권교육센터를 방문했다.

서대문구의회 지식정보연구회(대표의원 양리리)는 양천구장애인권교육센터 현장을 방문했다.

「양천구장애인권교육센터」는 장애인권교육과 장애체험활동은 물론 장애인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전담하고 있다.

지식정보연구회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 격차를 없애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꼼꼼히 현장을 체크했다.

특히 이 센터에서는 장애인 당사자가 강사로 나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장애를 겪고 있는 이들의 생활 곳곳의 불편 사항을 직접 듣고 배우는 기회를 가졌다.

양리리 대표의원은 물론 간사인 최원석 의원, 김해숙 의원, 김양희 의원 등 지식정보연구회 의원 전원이 참여해 장애인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했다.

실제 의원들은 센터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 내 장애인권교육센터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유니버설 디자인 시설 탐방, 지역사회장애체험(지체장애인의 이동권 체험) 등을 진행했다.

특히 의원들은 직접 휠체어를 타고 길에 나가 차도를 건너고, 공공기관을 찾거나 공원, 화장실을 이용해 보는 등 눈높이 체험을 시행했다. 또, 이 같은 체험을 통해 얻은 실질적인 불편사항은 물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까지 세심한 이야기를 나눴다.

지식정보연구회 양리리 대표의원은 『이번 장애인권교육센터 방문과 다양한 체험은 장애를 차별 없이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며 『우리 지식정보 연구회는 장애 뿐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가 어떤 격차나 차별 없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민과 더 가까이 소통, 서대문구의회 지식정보연구회, 구의회-구민 의사소통 방안 찾고자

구의회와 주민의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공공 정보 소통 실태 조사 시행
의회가 더 적극적으로 주민과 소통하는 방안 마련



[이뉴스투데이 수도권취재본부 권오경 기자] 서대문구의회 양리리 지식정보연구회 대표의원은 구의회와 지역주민과의 활발한 소통 방안을 찾고자 연구용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식정보연구회는 정보 공유의 중요성과 성별, 연령, 지역, 계층별 지식정보격차가 생기는 원인을 광범위하게 연구하고, 해소 방안을 찾고자 양리리 의원을 중심으로 최원석 의원(간사), 김해숙 의원, 김양희 의원 등 4인이 함께 하고 있다.

이에 연구회는 그동안 우리 구민 누구나 어떤 격차나 차별 없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정보격차를 없애고 다양한 정보복지 서비스 정책 만들기 위해 현장 연구를 지속해 왔다.

또, 지난해에는 “서대문구 주민 정보격차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질적조사”를 통해

구민들의 연령별, 계층별 정보격차 현황을 알아보는 연구용역을 시행한 바 있다.

올해는 그 범위를 좁혀 “서대문구의회와 주민의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공공정보소통 실태조사”를 주제로 연구용역을 진행, 주민들과의 소통 간극을 줄이고자 한다.

특히 기초의회의 활동범위나 역할, 의미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인 만큼, 이에 대한 실제 구민들의 인식 상황부터 원인, 문제점, 보완점까지 정확한 분석을 하고자 한 것이다.

이번 연구용역의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자면, 질적조사 전문업체인 採人智(채인지)에서 진행하며 주요 연구는 심층면담과 인터뷰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양적조사를 시행하며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홍보팀 등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도 실시한다.

이렇게 모아진 기초 자료를 토대로 구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의정활동 정보는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또,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의원들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등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양리리 지식정보연구회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구의원들과 구민들 사이에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특히 연구결과를 기초 삼아 구민들에게 한 발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올 10월까지 진행, 결과를 별도로 알릴 예정이다.